

##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

느헤미야 12:22-30

### 【인도자를 위한 예화】

우리 민족을 오래 지배해 온 무속(巫俗), 즉 샤머니즘의 근본정신은 자연의 지배자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 그 존재에게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신령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이를 가리켜 ‘신령한 존재가 보기에 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까지 애를 쓴다는 의미로 ‘치성(致誠)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치성을 드리기 위해 바위 앞에서 일천 번 절을 하거나,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 놓고 빌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신령한 존재를 부르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굿판 곧 신접 행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일 신접하는 행위로 굿을 하던 무당에게 신이 잘 내리지 않으면, 무당은 아직 정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굿을 부탁한 사람은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비비며 용서를 구하고는 더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떤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니 돈을 더 놓거나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속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이는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에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 【본문 읽기】 느헤미야 12:22-30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 예루살렘성의 무너진 벽과 망대를 모두 수리하고 재건했습니다. 현존하는 예루살렘성의 규모를 통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성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약 4.5km, 높이는 5~15m로 다양하며, 두께는 대부분 약 3m 정도입니다. 성벽 주위에 있는 망대는 43개, 성벽 출입문은 11개입니다. 솔로몬왕이 다스릴 시기에 예루살렘성에 거하던 인구는 5,000여 명, 느헤미야 당시에는 4,500여 명으로 추산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수고했지만 성 밖에서 살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개 지파 연합체였던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앗시리아에 멸망해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 속한 두 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 하십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레위 자손의 가문별 우두머리 명단은 어디에 기록되었나요?(22-23절)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아 때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위 자손의 가문별 우두머리 명단은 왕실 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투빔’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의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는 시편, 율기, 잠언, 전도서, 아가,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룻기 등 열한 권의 성경을 말합니다. 또한 ‘케투빔’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에서 ‘케투빔’은 새롭게 관리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종교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이름은 족장 개인뿐 아니라 족장이 속한 가문의 이름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왕실 일지는 ‘사건들의 책’ 혹은 ‘말들의 책’으로, 왕국의 사관들이 기록한 문서로 봅니다. 이 책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이나 왕의 행적 등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두아 때에 레위 자손의 가문별 우두머리 명단과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위 자손의 가문별 우두머리 명단이 왕실일지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 당시 레위 자손의 가문별 우두머리 명단이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왕실일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적용과 나눔 I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모두 기록된다면, 어떤 점을 바로잡고 새롭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마음속의 고향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1:4). 그러던 중 굳은 결심을 하고 아닥사스다왕에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유다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며 유다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시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성을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예배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릴 때 이전과는 다른 참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한 나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실 것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27-30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겉과 속이 온전히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하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 이것이 정결한 예배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혼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정결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결함을 훼손하려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시작을 알립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성전 봉헌식 중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정결함은 현재의 문제이자 사는 동안 이어질 평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며, 매사에 정결하게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 적용과 나눔 II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큐티(Quiet Time)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계속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침내 영적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히 4:12).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지킬 때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죄를 인식하게 하고, 깊이 뿌리내린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사모함을 갖게 하고, 결국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전할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삶에서 무너진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